

인쇄저널

Printing Journal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5

2023 Vol.426



스페셜 테마 | 세계로 나아가는 K-콘텐츠와 K-프린트

이슈 | 을지로~충무로 일대 국내 최대 인쇄 집적지 퇴출 위기

포커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새로운 소식 | 조합, 5월 16일(화)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일타강사의 현명한 선택

일타페이퍼는 촉감이 부드러워 책넘김과 필기감이 탁월합니다. 특히 무형광 제작으로 눈부심이 없어 수험서 대학교재 학습지 전용지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종이유통문화의 선두기업 **ih**



인쇄저널 월간(비매품) 5월호 | 통권 426

발행일	2023년 5월 10일
등록일	1990년 3월 23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윤중
편집위원장	서동숙
편집위원	강해성, 류윤현, 채연화
실무	기획홍보팀(오혜경, 김현택) 02-333-8631(내선 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p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쌍림동 146-1)
디자인 편집	카오스넷근아 / 02-2278-1577
인쇄	(주)투데이아트 / 02-2265-6119

※ 인쇄 및 용지는 (주)투데이아트에서 후원합니다.

Contents

- 04 스페셜 테마
 - 세계로 나아가는 K-콘텐츠와 K-프린트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친환경적 포장·패키지 인쇄 중요성 높아져
- 08 이슈
 - 을지로~충무로 일대 국내 최대 인쇄산업 집적지 퇴출 위기
 - 조합,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대책위원회》 구성하여 대책 촉구
- 12 클로즈업 I
 - 2023년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 제27대 임원 위촉 및 1/4분기 사업현황 보고
- 14 클로즈업 II
 - 대한인쇄문화협회 제44대 김병순 신임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 "인쇄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단체 간 화합하고 소통할 것"
- 16 포커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 신규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 17 신제품 소개
 - 한국후지필름리, 디지털 잉크젯 연속지 인쇄기 '젯프레스 1160CF' 출시
- 18 새로운 소식 I
 - 파괴될 위기에 놓인 '국내 최대 인쇄산업 생태계'
 - 조합, 5월 16일(화)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중기중앙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제19회 인쇄문화인 뉴시회 및 시조회 개최
- 20 새로운 소식 II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개편안 입장문 발표
 - 중기부,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사업" 추진
 - 2022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118.9조원"
- 21 Notice
 - 조합원 동정 외



해외시장에서 K-콘텐츠가 선전하며 한국 인쇄물의 수출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국민소통실(우측)

세계로 나아가는 K-콘텐츠와 K-프린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친환경적 포장·패키지 인쇄 중요성 높아져

등장한 지 4반세기 만에
수출 주력 산업이 된
한류와 'K-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였다. 전년도 119억 2000만 달러 대비 4.4% 증가했다. 2021년 연평균 환율을 적용해 환산해보면 수출액은 14조 3000억 원이다.

이는 한국의 대표 수출품인 가전(86억 7000만 달러), 전기차(69억 9000만 달러) 수출액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세계 최고급을 자랑하는 가전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주력 13대 수출품목이었다. 해외 각국에 K-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있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정길화 진흥원장은 "1961년에 한국의 10대 수출상품 리스트를 보면 '마른 오징어'가 5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다"며 "60년 후인 2021년에 K-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이 대박을 터트렸는데, '마른오징어'에서 '오징어게임'까지 상전벽해라고 할 만하지 않냐"며 달라진 수출 환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K-팝과 K-콘텐츠 확산으로 이른바 '한류 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은 17억 200만 달러에 이른 반면 관련 지출은 4억 6700만 달러에 불과해 12억 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로 BTS, 블랙핑크의 성공과 오징어게임 등 OTT 시장 확대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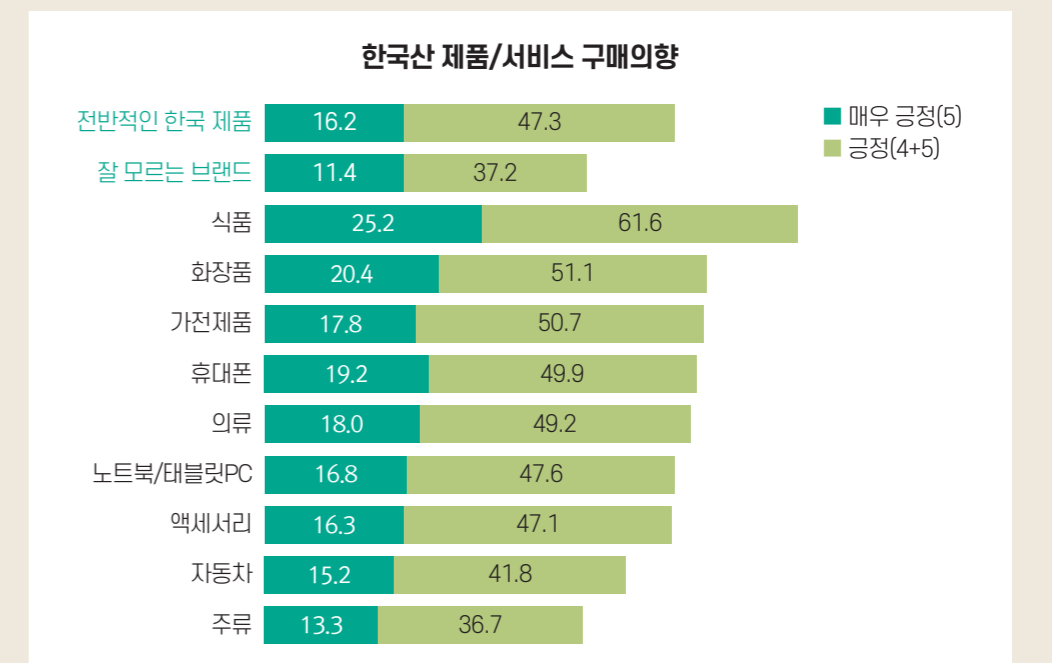
K-콘텐츠와 함께 인쇄물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

지난해 5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K-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가공식품, 의료, IT기기 등 소비재 수출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늘 어날 때 소비재 수출은 1억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원장은 "한국의 영상제작물, 웹툰, 예능을 보고 한국에 생긴 관심이 K-제품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개한 '20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도 K-콘텐츠가 한국산 소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드러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문화 콘텐츠를 경험해본 외국인 10명 중 6명 가량이 식품, 화장품, 가전 같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잘 모르는 브랜드라도 한국산이면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2022년 12월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한류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수출 규모는 2005년 13억 달러에서 2020년 119억2000만 달러로 9배 가까이 성장했다. 2020년 기준 한류의 직간접 수출효과는 105억2000만 달러, 생산유발효과는 21조 846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조18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3만6503명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인쇄물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음반·사진집·포토카드와 같은 전형적인 인쇄물뿐만 아니라 자동차·스마트폰의 설명서와 패키지(포장재), 식료품 등 각종 소비재의 레이블과 같이 모든 수출물에는 인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인쇄물 수출은 지난 2017년 2.21억불에서 2021년 4.82억불로 5년 간 94% 증가했다. 이미 내수 시장으로 10조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국내 인쇄산업은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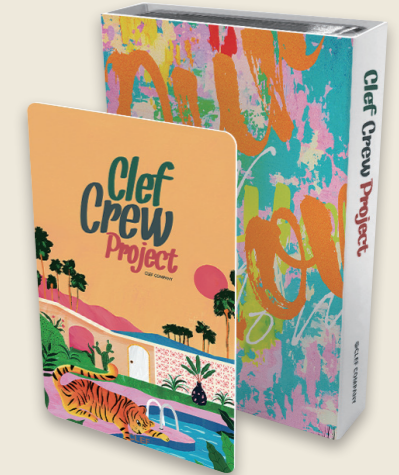
스웨덴 최대 식품업 유통기업 ICA는 자사 식품 유통과정에서 종이 패키징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ICA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패키지에 종이를 활용하며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삼성전자



지구의 날을 맞아 크라운제과는 잉크를 70% 줄인 친환경 인쇄 에디션 'C라운'을 출시했다 ©크라운제과



K-POP 시장은 최근 CD, 케이스 등 플라스틱을 없애고 친환경 인쇄로 제작되는 앨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모즈랩

2017~2021년 인쇄물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221	249	215	346	428
증감률	-15.9	17.9	12.7	-13.8	61.1

*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 통계」, 2022

인쇄물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친환경 인쇄'

인쇄물 수출에 있어 한국 인쇄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계 인쇄 시장의 트렌드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에서 인쇄물에 요구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바로 '친환경 인쇄'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글로벌 인쇄시장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쇄산업을 포함 모든 제조업은 ESG 경영 목표를 제시하는 등 친환경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중 유럽은 '그린딜 정책'을 펼치며 친환경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친환경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나라인 스웨덴은 2045년까지 '넷제로(Net-Zero)', 즉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100%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스웨덴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산업 혁신에 장기 투자하고 있다. 일례로 1917년 창업한 이래 스웨덴 전역에 1267개,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297개 식품점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최대 식품 유통기업 ICA는 식품의 친환경 포장에 플라스틱 패키징 비율을 46%나 낮추었으며, 관련 스타트업인 Saveggy와 협업해 100% 생분해 가능한 포장재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10%씩 성장하는 친환경 패키지 시장 K-콘텐츠 관련 인쇄물에도 친환경 인쇄 적용되고 있어

글로벌 리서치 회사 마켓리서치퓨처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지속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3% 성장하여 총 시장규모는 6,3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과 더불어 국내 인쇄산업은 국내외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에 맞춰 친환경 인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올해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맞춰 패키지에 사용하던 잉크를 70%가량 줄인 친환경 포장용 선보였다. 알록달록 화려한 색상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하던 잉크(7종)를 대폭 줄여 3종만 사용했다. 크라운제과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200kg의 탄소를 절감했으며, 이는 30살 소나무 20그루가 한 달 동안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 내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친환경 인쇄는 음반·포도카드 등 K-콘텐츠의 대표적인 인쇄물 수출상품에도 요구되고 있다. K-콘텐츠의 대표 산업인 케이팝 관련 상품들은 이벤트 응모권 및 수집품(컬렉션)의 역할이 크므로 원치 않은 상품이 배송되는 경우 대부분 버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들을 제작하는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는 플라스틱 포장이 수반되어 총 1억 7천만 원 규모의 '플라스틱 쓰레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CD·케이스 등 플라스틱 소재를 없애고 친환경 잉크·재활용 가능한 종이 등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는 등 K-콘텐츠 관련 상품에도 친환경 인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을지로~충무로 일대 국내 최대 인쇄 집적지 퇴출 위기

조합,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대책위원회' 구성하여 대책 촉구

-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으로 세운지구 재정비사업 본격화
- 대책 없는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5,000여 개소 인쇄업체가 밀집한 중구의 인쇄산업 붕괴 위기
- 중구에 조성된 인쇄산업 생태계는 국내 최대 규모... 인쇄업체 중 95%가 임차인
- 오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영세 인쇄소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OUT



(왼쪽)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 진행도(노란색 바탕 -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청색라인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오른쪽)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가상도 © 서울시

중구인쇄 특정개발 진흥지구

최근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일환으로 중구 세운지구 재정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구는 국내 최대의 인쇄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지역이자 우리나라 인쇄사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주자소 터>가 위치한 지역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 진흥계획은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며, 여기에 더해 중구 인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재개발사업이 강행된다면 이곳의 인쇄업체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에 조합은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등 서울시와 중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선 태종은 1403년 주자소를 지금의 중구 충무로에 설치했다. 조선 건국 이후 11년 만에 일이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혼란기가 지난 뒤 즉각 주자소를 설치한 까닭은 책을 인쇄하여 민중들에게 널리 배포하는 것이 유학자들의 나라 조선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소는 설치 직후 수십만 자로 구성된 금속활자 《계미자》를 만들어 여러 서책을 인쇄하고 보급했다. 주자소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최대 42년 빠른 시기에 『사시찬요(1403~1430)』와 같이 수많은 서적을 인쇄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금속활자 인쇄술의 선진국이었음을 나타낸다.

01 서울 을지로~충무로는 『주자소 터』가 있는 우리나라 인쇄사의 상징적 공간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건국하며 국가의 수도를 배산임수의 한양으로 천도한 이래 서울은 600여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 한민족의 수도로서 기능해왔다. 한양도성 사대문 안에는 궁궐과 국가가 기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6조·의정부·삼사 등 핵심 관청들이 들어섰고, 그중에는 활자의 주조와 서적 간행을 담당하는 『주자소』도 있었다.

02 재개발 사업으로 국내 최대 인쇄산업 집적지가 무너진다

‘주자소터’가 있는 서울 중구는 우리나라 인쇄사의 상징적인 공간이면서도 근대 이후에는 한국 최대의 인쇄산업 집적지로 부상했다. 현재 중구에는 5,500여 개 인쇄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약 1만 4000여 명의 인쇄인이 모여있다. 기획·디자인 / 프리프레스(CTP) / 인쇄(1도·2도·3도·4도·5도) / 후가공(코팅·에폭시·동판·필름·제책·포장)까지 공정별 역할을 서로 분담하며, 업체 간 상호 협업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갖춰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다.



을지로 중구청 옆
인쇄골목

중구가 국내 최대규모의 인쇄산업 생태계라는 것은 매출액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및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인쇄산업 시장의 총매출액 10조 6,826억 중 중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2조 98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구의 인쇄산업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개발사업으로 인해 붕괴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서울시가 '서울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의 일환으로 세운~인현사가 일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발표된 '서울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은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를 공원 및 고층빌딩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대로 서울시의 원안대로 계획이 추진된다면 대부분 9인 이하 영세 임차인인 중구의 인쇄업체들은 오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며, 오랜 기간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산업생태계도 붕괴되고 말 것이다.

03 중구 인쇄산업 생태계를 보존할 방법을 마련해야

서울시는 중구의 인쇄산업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와 중구는 “가장 많은 인쇄업체가 밀집된 중구에 도심특화산업인 인쇄업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전통인쇄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역사 문화유산 소실이 우려”된다며 을지로·충무로·인현동·오장동 일대 303,240.50㎡를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중구가 주도하여 인쇄산업 인프라 및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진흥계획은 현재 후속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이며,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마중물 사업이자 인쇄산업 진흥계획의 상징적인 시설이 될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의 건립또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600년 전 금속활자 인쇄술을 선도하던 주자소 터는 현 남산스퀘어빌딩(충무로3가 60-1) 앞에 표지석으로 남아있다.

중구 등 서울 도심의 낙후된 환경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최근까지 서울의 도심 재정비 계획은 기존의 건물을 개·보수하는 재생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국내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의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업환경의 개선은 인쇄업체가 고민해온 오랜 현안이며, 도심 재정비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인쇄인들 또한 사업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책전환 과정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마련된 중구 인쇄산업에 대한 진흥계획까지 좌초된다면 영세 인쇄소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04 조합,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대책위원회》 구성

조합은 중구 재개발로 피해를 받게 될 서울시 인쇄인 및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인쇄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대책위원회는 △건이서 제출 △설문조사 △연대 서명 △시정(구청) 질의 등을 통해 인쇄인들의 생존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 및 중구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16일(화)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인식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중구 인쇄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구 인쇄산업 생태계 보호의 당위성을 언론매체, 지역사회 등에 널리 홍보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3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27대 집행부 이사 위촉 및 조합 1분기 사업 보고

조합의 <2023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9일(화) PJ호텔 4층 카라디움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중 이사장을 비롯하여 제27대 집행부로 새로 위촉된 이사 및 감사, 조합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월 21일 제61회 정기총회를 통해 제27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정기이사회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개회사, 임원소개 및 위촉장 수여, 전회의사록 낭독, 의사록 서명이사 선정, 감사보고, 부의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조합의 2023년도 1/4분기 사업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제27대 임원 위촉 이사 52명과 감사 2인으로 구성

이날 김윤중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27대 조합 집행부가 오늘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한자리

에 모였다”며 “조합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려운 자리를 수락해 주신 모든 이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조합과 인쇄업계의 백년대계를 마련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님들께 약속드렸던 업계 현안들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후 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운 재개발 사업으로부터 인쇄산업을 보호하고 중구 조합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 회의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 조합 직원

들과 이사님 그리고 조합원이 참여하여 포스터와 전단지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6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인쇄업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토론회 참석자와 중구 인쇄인 3,000여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중구청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윤중 이사장은 “앞으로 조합은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서울시와 중구청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오니 우리 업계의 당면한 첫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인쇄업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6개의 안건이 부의되었으며, 이 중 제1호 안건 ‘2023년도 1/4분기 사업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와 제3호 안건 ‘분과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서울시의 세운지구 재정비 개발사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중구 인쇄산업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부의된 제2호 안건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의 구성을 조합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고 가결됐다.

이어 제4호 안건인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중 일부 개정 결의안’은 현행 120만 원인 조합 가입금을 인하하여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부의됐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의 논의와 투표를 거쳐 가입금을 50만 원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제6호 안건 ‘임시총회 개최 결의안’은 총회 부의사항인 제4호 안건의 의결을 위해 오는 5월 23일(화) 오전 11시 조합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됐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는 제27대 이사 및 감사로 위촉된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47명이 참석하여 성원을 충족했다.

제27대 임원 명단

성명	직위	업체명
김 윤 중	이사장	동호커뮤니케이션
진 용 특	상무이사	서울인쇄정보조합
강 종 범	이사	금강프로세스
강 형 석		(주)더숨씨
곽 호 섭		효인피앤피
권 용 희		(주)아사르프린팅
김 민 수		(주)두성
김 민 호		예영사
김 상 희		(주)지성토탈
김 성 미		(주)대원인크화학
김 영 식		태성문화사
김 유 석		글로벌로지스텍
김 재 명		(주)삼우아트
김 재 영		제일커뮤니케이션
김 종 만		(주)광문당
김 종 목		예성디앤피
김 중 식		제이아트
김 천 수		한아름인쇄
김 회 속		고은프린팅
도 경 수		해머아트
류 윤 현		(주)계문사
모 종 근		대광그래픽스
문 종 대	고대닷컴	
박 상 춘	(주)가보특수지	
박 장 선	(주)투데이아트	
박 정 은	(주)삼원프린테크	
방 윤 덕	삼성아이앤비(주)	

성명	직위	업체명
백 상 오	이사	해성실크
서 동 열		유림씨앤피
양 창 모		에스비앤디
여 한 균		조양커뮤니케이션
원 영 식		(주)상현원색
위 강 복		(주)세종기획
유 길 상		월드지앤피(주)
윤 석 칠		거목정보산업(주)
이 강 훈		(주)태산인디고
이 성 근		(주)청운토탈컴
이 종 국		유니아트
이 태 영		젤기획
이 홍 일		(주)영림인쇄
임 영 철		아트프린팅(주)
임 인 영		(주)에스케이씨앤피
장 세 만		순환정문사
장 세 훈		송죽문화사
전 준 호		카로스넷근아
정 철 희	(주)신아디앤피	
조 광 희	선명인쇄(주)	
차 문 규	큐디자인	
채 연 화	(주)보림에스앤피	
최 서 영	승화프린팅(주)	
최 영 식	한양애드	
황 정 해	청우	
안 영 주	감사	(주)제이스타메니지먼트솔루션
신 병 태		대산문화인쇄



제44대 김병순 대한인쇄문화협회 신임회장 기자간담회

“인쇄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단체 간 화합하고 소통할 것”

“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병순)는 지난 4월 5일(수) 문화협회 회장실에서 지난 2월 새로 취임한 김병순 신임 회장의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협회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순 회장은 인쇄단체 간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한편, 지난해 발족한 한국인쇄진흥재단과 향후 협회의 행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Q.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A. 우선, 제75회 정기총회에서 제44대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위기 속에 너무도 힘들었던 3년 동안 한국인쇄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한인쇄문화협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원종철 명예회장님과 임원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대미문의 고난 속에서도 저력을 보여주신 우리 협회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쇄인들에게도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협회의 지난 업적에 뒤이어 저 또한 인쇄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우리 협회와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인쇄업계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니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Q. 김병순 회장님께서서는 현재 인쇄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협회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A. 현재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인쇄물 제값 받기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쇄단가를 책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인쇄인들의 단결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적정가격 확보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안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회장에 입후보하며 공개했던 7대 공약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제44대 김병순 회장
선거공약

- 1 한국인쇄진흥재단 역량 강화
- 2 인쇄물 제값받기 캠페인 전개
- 3 관련 단체와 협업 강화
- 4 서체 및 디자인 자료 저작권 지원
- 5 기능 인력난 대책 강구
- 6 코리아 인쇄 어워드 개최
- 7 회원 증대 및 서비스 강화

Q. 현재 인쇄업계 내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 인쇄 기능인력 양성 방안 - 협회는 실질적인 산학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

용노동부,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쇄학과를 개설하여 대학 교육과 실습을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끝난 후에는 국내 인쇄업계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연계해야 가능한 것으로서 법무부와 산업부와의 정책 조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세계기능올림픽 ‘인쇄부문’ 참여 / 인쇄장인 선발 - 작년에 출범한 한국인쇄진흥재단이 서울공업고등학교·신구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세계기능올림픽에 우리나라 인쇄인이 참여하는 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쇄기술 인력의 사회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인쇄업계가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쇄장인 선발을 통해 인쇄기술 인력과 보유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들의 우수한 인쇄기술이 잘 보존 및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Q. 한국인쇄진흥재단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지 궁금합니다.

A. 한국인쇄진흥재단은 인쇄문화산업의 중장기 진흥 정책을 수립 및 제안하고, 인쇄산업계의 경영현대화와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해외시장개척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익기구입니다. 올해는 재단을 안착시키고 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재단의 운영 방향을 연구하는 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서는 선거 공약을 통해 인쇄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협업 강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A. 취임하고 곧바로 박래수 인쇄연합회 회장님과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3단체가 합심하여 업계의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다소의 불협화음이나 단체이기주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시정하고 한마음으로 앞만 보고 가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3단체가 의지를 모으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체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고용장려금 신청 가능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마감되며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제출
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위임 시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 서울시 누리집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디지털 잉크젯 연속지 인쇄기 ‘젯프레스 1160CF’ 출시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대표 요코타 토모히사, 이하 한국후지필름)가 동급 최고 속도와 뛰어난 인쇄 품질을 자랑하는 잉크젯 컬러 연속지 시스템 ‘젯프레스 1160CF(Jet Press 1160CF)’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 7년 만에 리뉴얼된 ‘젯프레스 1160CF’

이전 모델 출시 이후 7년 만에 새롭게 개발해 선보이는 제품인 만큼, 운영비 절감과 인쇄 품질 유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상업 인쇄 시장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얻고 있다. 특히 명세서 출력으로 대표되는 DM(Direct Mail) 업체와 대량의 교재 및 학습지 인쇄가 필요한 출판 업체의 업무 생산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젯프레스 1160CF’는 1,200x600dpi 기준으로 분당 롤 형태의 종이 160m를 양면 컬러로 인쇄할 수 있다. 기존 자사 모델 대비 분당 약 60m 정도 빨라진 속도로, 동급 모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인쇄 속도를 자랑하며 풀컬러 인쇄 시 분당 A4 용지 약 2,000장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더불어 언와인더(Unwinder, 급지장치) 및 리와인더(Rewinder) 기술을 통해 수만 장의 대량 인쇄도 고속으로 처리하며 빠른 시간 내 해결할 수 있다.



●●●●● 높은 해상도와 편의성을 갖춰

최대 1,200x1,200dpi의 높은 해상도로 선명하고 정교한 인쇄 품질도 구현 가능하다. 후지필름이 자체 개발한 이미지 최적화 시 기능과 고농도 안료 잉크를 사용해 미세한 선라인과 문자에서 높은 인쇄 정밀도를 자랑하고, 정교한 색상 표현 등 일관되고 안정적인 고해상도 인쇄 품질도 보장된다. 특히, 고농도 안료 잉크를 활용하면 보다 적은 양의 잉크를 좁은 구간에 집중시킬 수 있어, 타 제품 대비 잉크 소모량이 적어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더불어 열풍 건조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잉크를 건조할 수 있는 점도 전력 소모량 감소에 도움을 줘 친환경적이다.

뿐만 아니라, 후지필름에서 새롭게 개발한 프린트 립 서버가 적용돼 출력 데이터의 신속한 변환과 인쇄가 동시에 가능해 데이터 생성 시간이 짧고 스펀링이 없어 인쇄 작업의 생산성을 대폭 높여줄 수 있다. 이외에 오퍼레이팅 측면에서도 간단한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편리하다.

한국후지필름 김현곤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인쇄 및 출판 업계의 제작 공정 최적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객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파괴될 위기에 놓인 '국내 최대 인쇄산업 생태계' 조합, 5월 16일(화)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최근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무로~을지로 일대의 인쇄산업 집적지에 대한 뚜렷한 보호대책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대로는 국내 최대의 인쇄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인쇄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합은 현 상황에 대한 인쇄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5월 16

일(화)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세운지구 재개발이 진행되면 인쇄 소공인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세운 재정비사업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인쇄 등 각계 전문가가 준비한 발제를 청취한 이후 (사)한국인쇄학회 오성상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들과 청중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대토론회 마지막에는 서울시에 중구 인쇄산업 집적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함과 동시에 대토론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대 서명을 받는다. 이날 취합한 서명은 건의서와 함께 추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중 이사장은 "낙후된 서울 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해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국내 최대의 인쇄업체 집적지인 중구의 인쇄산업 생태계를 보존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인쇄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최근 청사 전면에 홍보 간판을 게재하여 녹지 및 공공주택 조성을 중심으로 한 세운 재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중기중앙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김윤중 이사장, 간담회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3일(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합의 김윤중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간담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도 '공짜 노동'은 반대하며, 근로시간 확대가 아니라 노사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여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9회 인쇄문화인 낚시대회 및 시조회 개최 인쇄인들의 사업번창과 한해 낚시의 풍년을 기원

인쇄문화인 낚시대회(회장 도경수)가 지난 4월 22일(토)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수로에서 <제19회 인쇄문화인 낚시대회 및 시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경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시조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 태안 수로에서 인쇄문화인 낚시대회 회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병태 회장님에 뒤이어 올해 새로이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열심히 노력하여 낚시대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낚시대회에서는 해머아트 도건용



대리가 길이 25.5cm의 붕어를 잡아 대어상을 차지했다. 낚시대회가 끝난 뒤에는 인쇄업계의 발전과 인쇄문화인 낚시대회 회원 및 조합원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시

조회를 열었다. 한편, (주)선일상사, 동양잉크(주), 월간인쇄계의 협찬으로 열린 이날 낚시대회에는 20여 명의 인쇄문화인 낚시대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근로시간 유연화, 중소기업에 반드시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4(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우리 조합의 조합원인 석용

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을 포함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공고
 제조혁신 전문가의 지도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 가능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2023년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이 사업은 스마트 공장 전문가(마이스터)가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을 위해 제조혁신 전문가의 지도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동 사업에 신청가능하다. 지원유형은 총 3개 유형으로 기본형, 심화형, 종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

원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이며,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기업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기업지원 규모는 총 1,000개사로 스마트 마이스터는 지원유형에 따라 개인 또는 조(팀) 단위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혹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을 확인하면 된다.

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안) 발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 “118.4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4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2023년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856개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18.4조원으로 작년(118.9조원)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75% 수준으로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 구매비율인 50%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공공구매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수는 2021년보다 18.1% 증가한 약 118천여개 사로 이는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이후 판로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중기부는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및 구매 독려 등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Notice

조합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무료 이용 및 신청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합 건물 3층 사무실 내에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나, 각종 소모임 및 회의 장소가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제1·2회의실 이용 안내(중구 마른내로 140, 3층)

- 이용인원 : 8~9인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신청
- 이용시간 : 월~금요일(토, 공휴일 제외) 10:00~12:00, 13:00~18:00
- 문의 : 총무관리팀 02-333-8631(내선 237, 236)
 - ※ 각 회의실 사무용 책상 1개 구비, 탕비실 이용 가능(커피, 식수)
 - 요청 시 빔프로젝트(이동식) 및 노트북 제공해 드립니다.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경 사항
	(주)상일이앤피	상일전산품(주)	(주)상일이앤피	상호
	(주)세창	중구 마른내로4길 25-7, 305호	서대문구 총정로 53, 1401호	주소
	(주)성신티앤디	중구 퇴계로36가길 86, 1층 (필동2가, 주성빌딩)	중구 마른내로12길 17-26 (충무로5가)	
	(주)레인보우피앤피	김육희	홍죽선	대표

- 결혼**
- 신창프린테크 이정호 대표의 아들 인규 군이 4월 22일 오펀리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신영 한흥수 대표의 아들 한욱 군이 4월 22일 여의도웨딩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부고**
- (주)교보피앤비 임요병 대표이사의 빙부께서 4월 4일 별세하셨습니다.
 - 고려문화 김삼식 대표의 모친께서 4월 15일 별세하셨습니다.



컬러 보존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보유인쇄기종

- RYO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일산 장항동 공장



일산 장항동 공장



충무로 공장

KYUNGSUNG 경성문화회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KIPES Since 1978



k·print 2023

KIPES 2023
제26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 LABEL 2023
한국레이블전시회

K PACK 2023
한국패키징전시회

K DIGITAL PRINT 2023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 TEXTILE 2023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 SIGN&AD 2023
한국사인·광고전시회

2023. 8. 23 수 - 26 토
KINTEX 제2전시장

주최
한국이앤엑스 /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인쇄연구소 /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Tel. 02.551.0102
 E-mail. kprint@kprint.kr

www.kprint.kr



SANG DONG HWA

당신의 고민!!
40년 노하우의 **상동화**가
해결합니다.

라벨, 플렉소, 제판, 패키징, CMS
고민이십니까?
진정한 전문가를 찾고 계십니까?
40년의 노하우로
믿을 수 있는 전문회사를 선택하십시오!



t. 02) 2279-5621 www.sangdonghwa.com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1205호) | Fax: (02) 2277-7015 | www.sangdonghwa.co.kr | sdh5621@sdh5621.com



디테일이 만드는 내일 EPSON EXCEED YOUR VISION